

# EU Brief

| EU 동향 |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정치적 의미에 대한 소고  
Political Significance of Croatia's entry into EU
- 부실 확대로 은행 구조조정 압력 증가  
Poor Management of Banks Imposes More Pressure on Restructuring
- 東西의 기로에 선 우크라이나  
Ukraine Stands at a Crossroads
- 한-EU FTA 발효 후 2년간의 실적과 평가  
Korea-EU FTA: Achievement and Assessment of past 2 years
- EU의 전자산업 육성책: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EU's Efforts to Revive Electronics Industry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b>EU Focus</b>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정치적 의미에 대한 소고 ..... 002 Political Significance of Croatia's entry into EU
	<b>EU Economy</b> 부실 확대로 은행 구조조정 압력 증가 ..... 004 Poor Management of Banks Imposes More Pressure on Restructuring
	<b>EU Politics</b> 東西의 기로에 선 우크라이나 ..... 009 Ukraine Stands at a Crossroads
	<b>Trade &amp; Investment</b> 한-EU FTA 발효 후 2년간의 실적과 평가 ..... 015 Korea-EU FTA: Achievement and Assessment of past 2 years
	<b>Industry Trends</b> EU의 전자산업 육성책: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 019 EU's Efforts to Revive Electronics Industry
	<b>EU Law</b>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 023 EU's Investigation on Google Violating the Competition Law
	<b>Social Issues</b> 좁은 문: 유럽의 여성 정치 리더십 ..... 027 Glass Ceiling: The Female Political Leadership in Europe
	<b>Report Review</b> 은행 건전성 개선이 중소기업 성장의 열쇠 ..... 032 Banking Soundness is the Key to more SME Financing
	<b>EU Centre news</b> 2013 EU 환경 하계특강 ..... 034 2013 Special Lecture for the Summer Season on EU Environment 2013 브뤼셀 Immersion Field Trip ..... 035 2013 Immersion Field Trip to Brussels 제1차 한-EU 협력 포럼 ..... 036 1 <sup>st</sup> Korea-EU Cooperative Forum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정치적 의미에 대한 소고

## Political Significance of Croatia's entry into EU

Croatia joined the EU on July 1<sup>st</sup>, 2013.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application. As one of the 28<sup>th</sup> member countries of the EU, Croatia is giving gun salutes and Beethoven's 'Ode To Joy' is being played all over the country to celebrate its entry to EU. The circular plaza in fro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in Brussels, Belgium, was filled with large notices to welcome Croatia as a new member country. The current situat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ne when the fiscal crisis resulted in conflicts among member countries and even the rumours of the Eurozone break-up were heard.

The EU's development may be discussed in two different aspects - deepening and widening. The deepening of European integration includes the policy deepening and institutional deepening. Political deepening is to enhance the completeness of existing policies and expand the areas of EU policies. To put it another way, the policy deepening involves the advancement of integration in areas where the integration has already progressed to a large degree, rearrangement of rules according to changes in situations, and expansion of the influence of EU into new areas. The opening of a new market and introduction of the euro are two of the examples. Institutional deepening is to rearrange the institutions related to decision-making. For instance, institu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the voting rights among member countries, scope of applying the majority rule are established or developed for more efficient and reasonable decision-making. Some of the examples are the adjustment of the scale of European Commission,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nd so forth.

Widening indicates the spatial expansion of EU. The EU integration began with 6 countries. For more than

60 years, 7 sets of expansions were made until the number of member countries reached 28. Now that it is the largest regional economy in the world with a population of 500 million, the EU is an leading agent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y.

EU's expansion to Croatia is a refreshing stimulus as the integration of Europe is facing challenges. Above all, it reminds people that the EU is still attractive despite many problems and criticisms. As well as Croatia, many other countries in the Balkan region are attempting to join the EU. Turkey, for example, has been applying for the membership of the EU for more than 30 years. Ukraine, Moldova and Georgia are other examples. In 20 to 30 years time, the number of EU member countries might reach more than 40.

Being a member of the EU not only brings the economic benefits such as greater market access but also means to be a member of the security community. The 'security community' means that there is no option to solve conflicts among interested countries by force at all. The EU has established the security community with the goal of no possibility of war between member countries. Hence, emerging nations of former Yugoslavia including Croatia, which just became a member of the EU, can no longer imagine the tragic bloodshed conflicts of the early 1990s.

Ultimately, the expansion of the EU means an expansion of the region of stability and peace in political perspectives. In other words, it will result in stabilizing Europe by internalizing the instability of surrounding regions. Indeed, the bridgehead for EU expansion into the Balkan region has just been established. ★

Jinwoo Choi, a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했다. 가입 신청 10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EU 회원국은 이제 28 개국이 되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수도 자그레브는 물론이요, 전국 각지에서 EU 가입을 축하하는 축포가 쏘아 올려지고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졌다. 새 회원국을 맞이하는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의사당 앞 원형 광장은 크로아티아 가입을 환영하는 대형 게시물로 가득 채워졌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채 위기로 말미암아 회원국 간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유로존 해체론까지 대두됐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EU의 발전은 심화와 확대, 두 가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유럽 통합의 심화는 정책적 심화(policy deepening)와 제도적 심화(institutional deepening)를 의미한다. 정책적 심화는 기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EU의 관할 정책 분야를 넓혀나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미 상당 수준 통합이 진행된 분야에서의 통합의 진전, 상황 변화에 따른 규칙 재정비, 그리고 새로운 분야로 EU의 관할권을 확대해나가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단일시장의 출범, 유로화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도적 심화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예컨대 회원국 간의 표결력 배분, 다수결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거나 발전시켜감으로써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를 일컫는다. EU집행위의 규모 조정, 통상적 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의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확대는 말 그대로 EU의 물리적 공간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통합은 초창기 6개국으로 시작했다. 60여 년의 세월 동안 일곱 차례의 확대 끝에 지금은

회원국이 28개국이 되었다. 인구 5억 명,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갖춘 EU는 국제 정치·경제 분야에서 매머드급 행위자가 된 것이다.

크로아티아로의 EU 확대는 유럽 통합이 난관에 부딪힌 현 시점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자극제다. 무엇보다도 EU는 많은 문제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대상이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EU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터키도 30년 넘게 EU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지아 등도 가입 희망국의 대열에 속해 있다. 20~30년 후에는 EU가 40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을 거느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U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혜택, 즉 보조금의 수혜와 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보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의미한다. 안보공동체는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 시 무력을 통한 해결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를 일컫는다. EU는 설립 목적도 그러했거니와 지난 60년간의 발전을 통해 회원국 간 전쟁 가능성이 제로인 안보공동체를 구축했다. 따라서 이제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를 비롯해 구 유고슬라비아 신생국들은 1990년대 초반에 겪었던 처절한 유혈분쟁을 더 이상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EU의 확대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안정과 평화의 지대가 더욱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주변지역의 잠재적 불안정성을 내면화시킴으로써 유럽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 EU의 발칸으로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

최진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부실 확대로 은행 구조조정 압력 증가

## Poor Management of Banks Imposes More Pressure on Restructuring

Worried about the poor management of banks in Europe, experts are urging for the prompt restructuring of weak banks so that the Eurozone can recover and overcome the crisis. The IMF, in particular, keeps warning that unless banks in Europe find ways to expand their capitals at a far greater scale, weak zombi banks would cause the Eurozone economy to fall into a long-term economic slump like the case of Japan in the 1990s. The problem is this: because fiscally weak countries do not have the abilit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bank restructuring and capital expansion, they exp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EU; but countries in Northern Europe including Germany are opposed to it. Back in June 2012, countries in Northern Europe acknowledged the necessity for ESM to support banks directly, but they changed their attitude once the financial market began to calm, urging the member countries to take measures for themselves. At the end of June, 2013, the EU financial ministers and the leaders of states concluded the agreement on the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BRRD). The directive includes burden sharing rule in case of bank restructuring; and it is of great significance because the rule, which was adopted for the first time in March 2013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a condition of Cyprus relief loan,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has now become a n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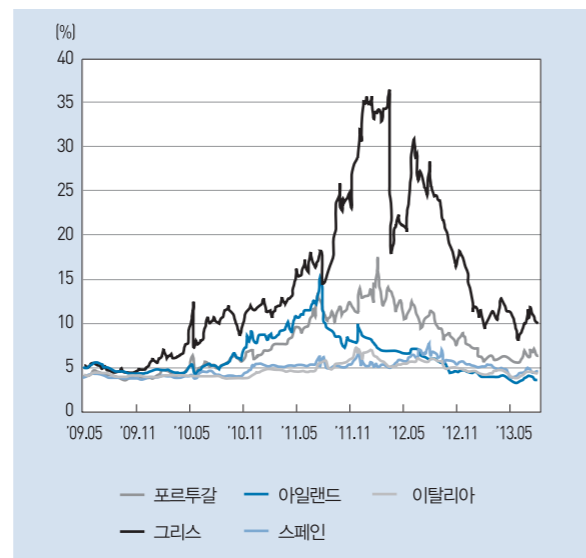
###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

2012년 7월 하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유로화 수호 발언' 이후 9개월 동안 유럽 금융 시장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해왔다. 남유럽 재정위기국들의 국채금리는 물론 국가부도위기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하락세를 지속해왔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최악의 유로존 위기가 끝났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초에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 논의가 시작되면서 시장에서는 유로존 위기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 시장에 불안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유럽 은행의 부실 확대와 앞으로 예정된 대대적인 은행 구조조정을 유로존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은행은 실물경제의 자금줄 역할뿐 아니라 국채투자를 통해 정부재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은행부실이 확대되어 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은 고사하고 정부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다. 즉, 은행부실로 인해 은행위기-실물경제위기-재정위기가 상호 작용하는 악순환 고리(vicious circle)가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은행들이

### ★ 재정위기국들의 국채금리(10년물 기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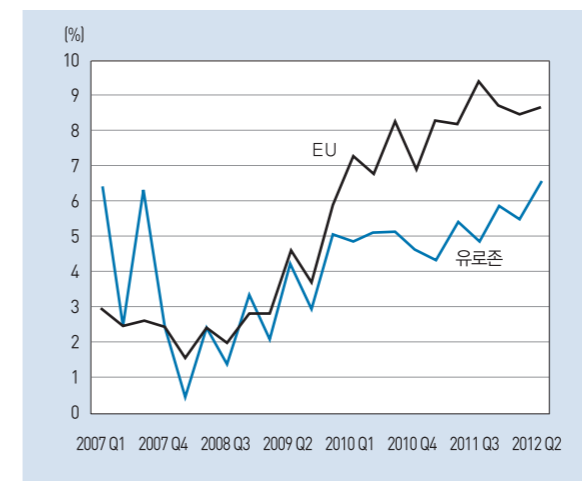
유로존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유럽 은행의 부실 현황을 살펴본 다음, 지난 6월 말 EU 차원에서 합의한 은행 구조조정 및 자본 확충 시 적용될 손실부담원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은행위기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본다.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은행부실이 확대

우선, 유럽 은행들의 부실 현황부터 살펴보자. 발표 기관에 따라 분류 기준이 상이해 은행부실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IMF가 발표하는 금융건전성지표(FSI)<sup>1</sup>에 따르면, EU 27개국의 무수익여신(NPL: Non-Performing Loan) 비율<sup>2</sup>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7년 12월 2.5%에서 2012년 6월 8.6%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유로존의 NPL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은행부실이 심각한 동유럽 국가들이 제외되어 EU보다는 6.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 ★ 유럽 은행의 NPL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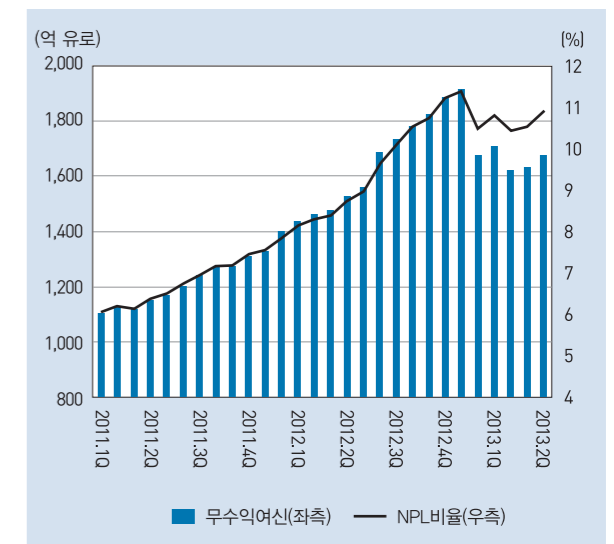
자료: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FSI).

은행부실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큰데, 경기침체와 실업난으로 고전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NPL 비율은 최근 10% 이상으로 치솟아 있는 상태다. 스페인의 NPL 비율은 2011년 1월 6.1%(무수익여신 1,108억 유로)에서 2013년 4월 현재 10.9%(무수익여신

<sup>1</sup> 금융건전성지표(FSI: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는 유럽 국가 중 독일이 빠져 있어 유럽 은행의 부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sup>2</sup>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채권을 무수익여신으로 간주하며, 무수익여신을 총 대출액으로 나누어 계산

1,671억 유로)<sup>3</sup>로 상승하였다. 현재 스페인 정부가 배드뱅크(SAREB)<sup>4</sup>를 설립해 은행들의 부실자산 정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sup>5</sup>과 실업난 등으로 민간부문의 부실채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 스페인 은행의 NPL 규모와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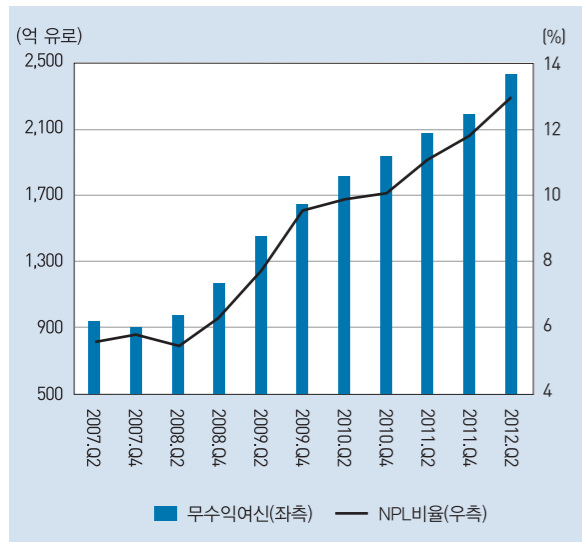


자료: 스페인 중앙은행

이탈리아도 은행부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때 이탈리아는 주택버블 붕괴의 후유증을 앓던 스페인과 달리 은행의 재무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부실과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여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채권도 빠르게 증가했다. 2007년 2/4분기에 941억 유로에 불과하던 무수익여신 규모는 2012년 2/4분기에 2,429억 유로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중 NPL 비율은 5.6%에서 12.9%로 상승하였다.

<sup>3</sup> 무디스는 부동산 추가 부실 등을 이유로 2012년 말 현재 스페인의 NPL 비율이 1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sup>4</sup> 자본금 50억 유로의 배드뱅크인 SAREB가 2012년 12월 1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  
<sup>5</sup> 2013년 1/4분기 스페인의 주택가격은 전기 대비 5.1%, 전년 동기 대비 12.8% 하락

★ 이탈리아 은행의 NPL 규모와 비율 추이



자료: 이탈리아 중앙은행

유럽 은행들의 부실자산 규모는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2011년 10월에 IMF의 유럽담당 국장은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액을 1,000억~2,000억 유로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 부실채권의 급격한 증가<sup>6</sup>와 자본요건 강화정책 등을 고려할 경우,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액이 1조 유로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은행 자본 확충 압력이 고조

유럽의 은행부실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유로존 경제 회복과 위기 해소를 위해 부실은행의 신속한 정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IMF는 유럽 은행들이 자본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지 않을 경우 부실 좀비은행들로 인해 유로존 경제가 1990년대의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음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ECB의 통계에 따르면, 유럽 은행들은 2012년 중반 이래 2조 4,000억 유로의 자산을 감축하였다.<sup>7</sup>

<sup>6</sup> Ernst & Young(Ernst & Young)은 유로존 은행들이 9,180억 유로의 무수익여신(NPL)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KPMG는 유럽 은행들의 NPL 규모를 1.5조 유로로 추정

하지만 영국계 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은 유럽 은행들이 오는 2016년까지 적어도 2조 7,000억 유로의 자산을 추가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8</sup> 자산규모 기준으로 유럽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이미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자본요건 강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약 1조 유로(전체 자산의 20%) 줄여 총자산 대비 자본비율(ratio of equity to total assets)을 현행 2.1%에서 최소 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이체방크는 전환사채 발행(60억 유로), 비핵심 자산 매각(900억 유로), 현금보유 축소(2,400억 유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럽의 다른 대형 은행들도 자본요건 강화와 은행 구조조정 작업을 앞두고 대대적인 자본 확충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6,000여 개에 이르는 중소 영세은행들은 독자적인 자본 확충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재정여력 소진

그렇다면 EU 국가들은 앞으로 시행될 은행 구조조정과 은행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을까?

EU 국가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EU GDP의 2.4%(총 2,880억 유로)에 이르는 정부재정을 투입하였다. 아일랜드는 2007~2011년에 GDP 대비 26% 규모의 정부재정을 은행 자본 확충에 투입하였다. 이밖에도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이 2012년까지 0.5~4%에 이르는 정부재정을 은행 정상화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정부재정이 극도로 취약해져 있다. 유로존 전체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8년 70%에서

<sup>7</sup> 2013년 5월 기준 EU 내 은행 자산은 EU 연간 GDP의 3.5배에 해당하는 약 45조 유로. 유로존 내 은행 자산은 32.5조 유로(GDP의 342%)로 추정

<sup>8</sup> Ernst & Young은 유로존 은행들이 1.5조 유로의 자산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예상

2013년 3월 말 현재 92.2%로 급증한 상태다. 이리다보니 재정취약국들은 은행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능력이 없어 EU 차원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 EU 회원국들의 은행 지원 규모(2008~2011년)

구분	금액(억 유로)	GDP 대비(%)
자본투입	2,880	2.4
은행 채무 보증	11,120	9.1
부실자산 탕감	1,210	1.0
유동성 지원	870	0.7
전체	16,080	13.1

자료: EU집행위

하지만 문제는 남유럽 재정위기국들의 기대와 달리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6월에만 하더라도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은행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북유럽 국가들은 시장 내 위기가 진정되니 태도를 바꿔 회원국 차원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 구조조정 시 적용할 손실부담원칙에 합의

2013년 6월 말 EU 재무장관과 정상들은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은행 회생 및 정리 지침(BRRD: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에 최종 합의했다. 이 법안은 은행 구조조정 시 적용할 손실부담원칙을 담고 있다. 은행 회생 및 정리 지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2013년 3월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할 당시 예외적으로 처음 적용했던 손실부담원칙을 EU 차원의 지침(directive)으로 제도화해 앞으로 은행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은행 회생 및 정리 지침’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손실부담 순서

(burden sharing scheme)다. 손실부담원칙의 핵심은 은행 회생 및 정리 과정에서 정부재정과 유럽안정화기구의 구제금융자금 투입(bail-out)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와 고액 예금자에게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bail-in)하게 하는 것이다. 부실은행 지원으로 인해 정부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 할 수 있다.

은행 구조조정 시 적용되는 손실부담 순서를 보면, 은행 주주와 채권 보유자가 손실을 맨 먼저 부담하고, 그 다음으로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자(대기업과 금융기관)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회원국의 구조조정 기금과 정부(재정),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유럽안정화기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키프로스 사태에서 보듯, 10만 유로 미만의 소액 예금자는 물론 중소기업도 법으로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부실은행의 회생을 위해 지원에 나서려면 그 전에 주주 및 채권 보유자와 고액 예금자가 해당 은행의 손실을 전체 부채의 8% 이상 떠안아야 한다. 이후에 은행들이 출연한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 회원국 정부는 해당은행 부채의 최대 5%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자와 예금자의 1차 손실부담과 구조조정 기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자본 부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우려될 경우, 민간투자자와 예금자에게 2차 손실을 부담하게 한 다음, 회원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

유럽안정화기구는 최종대부자로서 총 5,000억 유로 중 최대 600억 유로의 한도 내에서 엄격한 조건하에 은행을 지원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지원 방식이 있다. 첫째는, 회원국 구조조정 기금과 회원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스페인 은행 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유럽안정화기구는 스페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395억 유로의 구제금융자금을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에 지원했다. 물론 이 당시 지원액은 스페인의 정부부채에 합산되었다. 둘째는, 위급한 상황에서

회원국 정부가 의무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유럽안정화기구는 다른 회원국들의 승인하에 부실은행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국의 정부부채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행손실 부담원칙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유럽의회가 2013년 말까지 법안을 승인하면 동 지침은 5년 후인 2018년부터 공식 발효된다. 하지만 손실 부담원칙은 ECB가 단일 은행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7월 10일에 EU집행위는 민간투자자들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한 은행 보조금 지원 원칙(Banking Communication)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2013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4년 상반기에 140여 개 대형은행에 대한 ECB의 자산재평가(AQR: Asset Quality Review) 작업과 은행 스트레스테스트가 실시되면 민간투자자 손실부담을 전제로 한 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고액 예금자들은 은행 자산재평가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은행별 자본 확충 능력, 은행 구조조정 일정, ECB의 지원정책 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 무질서한 은행 구조조정 추진 시

##### 은행위기가 초래될 위험성

은행손실 부담원칙은 앞으로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은행 구조조정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원만히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은행 회생 및 정리 지침이 개정되어 일부 내용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법안 내용이 유지된다면, 타국의 은행부실을 매우기 위해 자국의 재정을 투입하거나 유럽안정화기구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의 주장이 관철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부실 규모가 크고 재정여력이 취약한 국가의 은행들은 시장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본 확충과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투자자들의 커다란 손실부담(헤어컷)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둘째, 손실부담을 우려한 주주 및 채권 보유자들과 고액 예금자들이 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보유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시장 불안이 재연될 소지가 크다. 스페인의 은행 구제 금융 지원 및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당시 민간투자자들이 손실부담을 우려해 자금을 대규모 인출해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바 있다.<sup>9</sup> 특히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앞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장기금리 상승으로 금리차를 노린 글로벌 자금이 유로존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마저 있다. 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유럽 은행들은 유동성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CB의 은행 부실자산 매입이나 3차 저금리 장기대출(LTRO) 실시 등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무질서한 은행 구조조정으로 인해 유로존이 다시 한 번 은행위기에 처하게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sup>9</sup> 실제로 키프로스의 은행 구조조정 당시 민간투자자들은 약 50%의 손실을 부담

## 東西의 기로에 선 우크라이나

### Ukraine Stands at a Crossroads

On November 28<sup>th</sup> to 29<sup>th</sup>, 2013, Vilnius, the capital of Lithuania, is going to face a crucial event that will decide the fate of Ukraine — the conclusion of the European Union Association Agreement between Ukraine and the EU. In February 2013, the EU demanded that Ukraine not only undertake reforms as a precondition of AA conclusion but also sever its ties with a Russia-led Customs Union. Ukraine expressed its decision to accommodate such a demand from the EU and took a series of reform measures. On May 31<sup>st</sup>, 2013, however, Ukraine signed a deal to become an observer in the CU. This was a head-on challenge to the position of the EU that AA with the EU and the agreement with the CU cannot coexist. Interestingly, both EU and CU insist that joining the economic block of the other party would cause Ukraine to lose its economic sovereignty. Though standing at a crossroads between choosing one over the other, it is true that Ukraine, in fact, attaches greater importance to AA with the EU although it argues that both ways are possible and claims that the EU do not object to that. This means that it might sacrifice its relation with the CU for the sake of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EU. Its choosing one side, however, would inevitably involve great sacrifice and impact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 2013년 11월 EU와 「협력 협정」 체결 예정

2013년 11월 28~29일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이 예정되어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협력 협정(European Union Association Agreement, 이하 AA)」 체결이다. AA는 EU와 EU의 비회원국 간에 정치, 통상,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의 협력을 보장하는 틀로서 비회원국의 EU 가입 이전 단계로도 볼 수 있다. AA는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FTA 체결과 함께 EU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회원국이 EU의 경제권역으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EU에 의존하고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며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한 우크라이나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오랜 숙원인 EU 가입을 한층 앞당기게 되는 것이어서 다가오는 빌뉴스 회담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기대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AA 체결을 향한 약 4개월의 여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이 과정에서 강력한 대내외적인 시험과 압박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EU 측에서 AA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사법 및 선거법 제도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그 실행의 일환으로 2013년 4월 전 내무부장관 유리 루첸코와 전 환경부장관 게오르기 필립чук을 사면했다. 그러나 EU가 요구하는 사법 남용의 핵심 피해자인 전 총리 올리아 티모셴코의 석방에 대해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석방은 커녕 그녀의 신병 치료를 위한 독일행도 허용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24일 EU 측은 오는 11월에 AA 체결이 불발될 가능성을 내비추었다.<sup>1</sup>

#### 우크라이나와 EU의 관계 변화 추이

2005년	빅토르 유셴코 전 대통령 당선 이후 EU 가입을 시도
2010년	신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상호 동반자 협정 프로토콜」을 체결하고, EU 측은 2011년 중반까지 AA 체결할 가능성을 피력
2011년	하반기 올리아 티모셴코의 체포와 징역 구형으로 EU와의 관계 악화
2012년	(3월) AA 체결에 대해 사전 합의
2013년	(2월) EU 측이 사법 개혁 등 AA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
2013년	(4월) 우크라이나는 전제조건 실행의 일환으로 전 내무부장관 유리 루첸코와 전 환경부장관 게오르기 필립чук을 사면. 그러나 전 총리 올리아 티모셴코는 제외
2013년	(11월) AA 체결 예정이나 불확실

<sup>1</sup> В Люксембурге четко сказали Украине: нет реформ — нет ассоциации. (2013.6.24.), *Delo.ua*

## EU와 CU<sup>2</sup>사이의 불안한 곡예

EU는 2013년 2월 A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개혁을 요구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CU와의 관계를 5월까지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sup>3</sup>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EU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표명했고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했지만, 2013년 5월 31일 돌연 CU의 옵서버 자격을 기정사실화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EU 측을 당황하게 하였다. CU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옵서버 자격 취득은 사실상 향후 CU에 정식 회원으로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EU와의 AA와 CU와의 협정이 공존 불가능하다.'는 기존 EU의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EU는 보름 뒤 'CU에 먼저 가입할 경우 EU를 포함한 어떤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통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경고하였다.<sup>4</sup> 이어 7월 11일에는 'CU와의 협력이 EU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며 EU와의 사전 상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향후 AA가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되어 다시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문명에 속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sup>5</sup>라고 강조했다. EU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러시아는 반발했다. 그리고 이를 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EU와 AA를 체결하면 더 이상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sup>6</sup>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AA를 체결하면 통상 관련 모든 문제를 EU가 결정하여 우크라이나는 경제주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동등한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EU 측과 CU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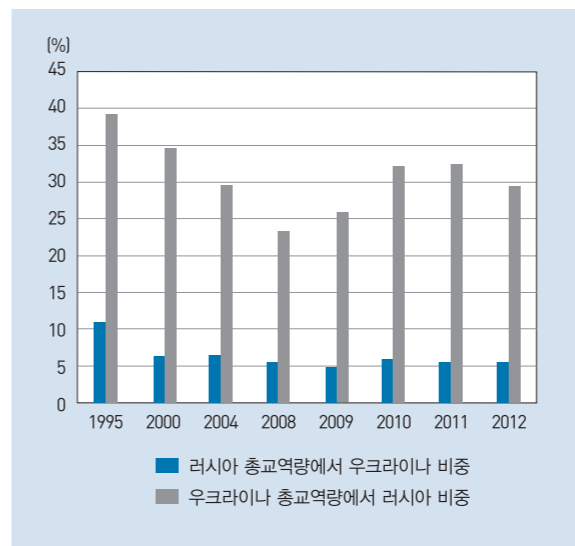
모두 상대편 경제블록에 가입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주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잃을 수도 있는 극단적인 기로에 놓인 우크라이나는 둘 다 가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EU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sup>7</sup>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EU와의 AA 체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EU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CU와 협력할 것'<sup>8</sup>을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EU 가입을 위해 러시아를 비롯한 CU와의 관계를 희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크라이나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큰 희생과 파장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줄어드는 러시아와 CU의 경제 비중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CU보다 EU를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EU는 CU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5억 인구의 글로벌 초대형 시장이다. 이에 반해 CU는 세계 10대 경제 블록 중에서 역내 교역규모가 가장 작다. 세계 시장의 11%로 NAFTA의 4분의 1, 중국-아세안의 5분의 1, 그리고 EU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CU의 모태가 되는 CIS의 역내 교역 규모도 최근 16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량 줄어들었다. CU와 CIS의 역내 교역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이기 때문이다. CIS 회원국 대부분이 '자원 수출, 공산품 수입'의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CIS 수출의 63%가 광물자원인 데 반하여 세계 경제의 자원 수출은 17%, 공산품의 수출은 70%다. 따라서 CIS 국가들은 역내무역보다는 역외무역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둔다. 같은 이유로 역내에서 가장 경제적 비중이

큰 러시아도 CIS와 CU 경제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수출에서 CU가 차지하는 비중은 7.4%, 수입 비중은 5.7%에 불과하다. 2012년 러시아의 총 교역량에서 EU와 아태지역은 각각 49%, 24%를 차지하여 주류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1.1%p, 0.2%p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반면, CIS는 러시아의 총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1%이고, CU는 6.9%에 불과하며 이 또한 전년 대비 1.0%p와 0.4%p 감소한 수치다. 우크라이나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18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대외교역에서 CIS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에서 36%로 감소했고, 2012년 CU 3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출도 전년 대비 4.6%p 감소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교역량 변화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러시아의 대외 교역량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1%, 우크라이나의 대외교역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5.4%와 29.3%로 감소했다.

###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역 비중 변화



자료: 러시아 통계청, 우크라이나 통계청

## 늘어나는 EU의 경제 비중

한편,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2년 양측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30% 늘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외투자 중 78% 이상이 EU에서 온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는 데 EU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천연가스 공급자였으나 2012년 말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2012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은 전년 대비 26.5%가 줄어든 약 33bcm이었으며, 2013년에는 18~20bcm으로 더욱 축소할 계획이다. 반면, 유럽으로부터의 수입량은 7bcm까지 대폭 늘릴 예정이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년까지 러시아의 가스 수입 비중을 3분의 1로 축소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EU 국가들로 가스 수입선을 더욱 다변화하는 한편, EU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셰일가스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012년 11월 독일의 RWE 서플라이엔트레이딩과의 수입 계약을 시작으로 2013년 4월에는 헝가리에서 가스 공급이 개시되었고 현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과 수입 계약이 진행 중이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유럽에 설치해놓은 우크라이나의 4대 가스관 중 하나를 통해 EU의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약 10bcm의 가스를 공급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EU 기업들의 투자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는 다보스에서 로얄더치셸과 약 100억 달러의 셰일가스 개발 투자에 합의했는데, 예상 연간 가스 생산량은 200억m³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월에는 로얄더치셸의 부사장 그라함 타일러가 우크라이나 셰일가스 개발에 우선적으로 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셰일가스 생산 투자로 4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에니와 영국의

2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국의 관세동맹(Customs Union)

3 Brüssel gibt der Ukraine nur noch eine letzte Chance. (2013.2.24.). Die Presse.

4 Брюссель обещает не ревновать Украину, Кремль предупреждает. (2013.6.15.). AP.

5 Пятрас Вайтекунас: "Ассоциация с ЕС означает, что Украина проходит точку невозврата." (2013.7.11.). СЕГОДНЯ.ua.

6 Россия ставит ультиматум: если Украина подпишет соглашение с ЕС - она перестанет бы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2013.7.13.). Новорос.info.

7 В ЕС не считают, что Украина стоит на распутье между ними и ТС - Елисеев. (2013.7.5.). Интерфакс-Украи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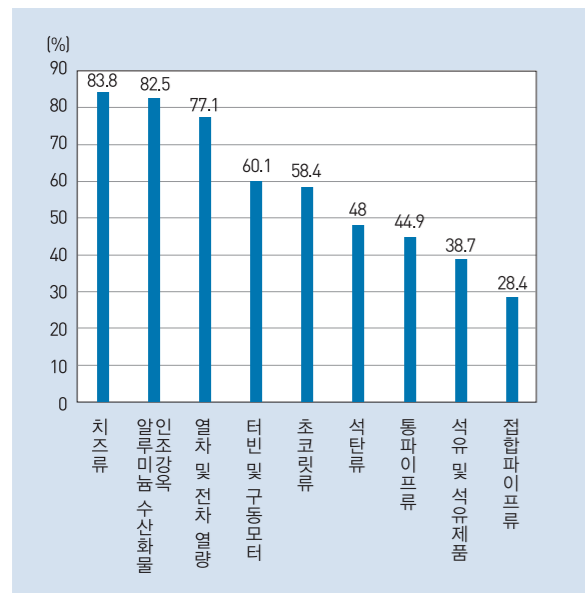
8 Путин заявил, что отказ Украины от ТС грозит ей де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ей. (2013.4.25.). ZN.UA.

카도간 페트롤리엄도 우크라이나 서부의 셰일가스 개발  
탐사를 2013년 내에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여전한 러시아 의존도와 EU 가입의 후유증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EU의 비중이 확대되고 러시아  
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  
의 위상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전문가  
는 거의 없다.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러시아는 우  
크라이나 대외교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  
크라이나의 수출품 중 70% 이상이 러시아에 수출되는  
등 여전히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시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치즈의 83.8%,  
인조강옥과 알루미늄 수산화물은 82.5%, 기차열량은  
77.1%가 러시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 ★ 러시아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품군



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자료: 우크라이나 통계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체 수입의 20%, 대러시아 수입  
의 60%에 달하는 러시아의 가스 및 석유에 대한 의존도  
또한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13년 4월 대국민담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많은 산업이 CU 특  
히 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CU  
에 가입하지 않고 유라시아로부터 고립될 경우 산업 자  
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sup>9</sup> 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대로 CU에 가입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우크라이나는 연간 90~100억 달러의 부  
가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푸틴 대통령의 보좌  
관인 세르게이 글라지예프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의 AA 체결은 자살행위라고까지 강력하게 비난했다.<sup>10</sup>  
CU 가입 이후 가스와 석유를 무관세로 수입할 경우 예상  
되는 45~50억 달러의 수익을 포기하고 대신 EU의 무역  
규제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겠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세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EU를 선택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중단기적으  
로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은 자명하다. 당장 EU  
는 AA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의 광케철도를 협케철도  
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장 3만km에 달하는  
철도뿐만 아니라 6,000대 이상의 기차 열량을 모두 교  
체해야 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이로써 러시아를 비롯한  
CIS와의 경제적 단절이 완전히 고착화된다는 점은 현  
재의 우크라이나 산업구조상으로는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존의 인증제도를 EU 기준  
으로 바꾸는 데 따른 산업계의 혼란과 그 비용 또한 만  
만치 않다.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을 조율함에 따라 우  
크라이나 국내의 전기, 가스, 석유 가격이 상승하여 전  
반적인 물가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며, 현재 300만 톤에  
이르는 대유럽 곡물 수출은 100만 톤으로 줄어들고 설  
탕 수출도 30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무기 입찰에 유럽 기업이 참여하게 됨으  
로써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할

<sup>9</sup> Путин заявил, что отказ Украины от ТС грозит ей де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ей. (2013.4.25.). ZN, UA.

<sup>10</sup> Советник Путина настойчиво приглашает Украину в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2013.6.14.). UNIAN.NET.

경우 장기적으로 산업 현대화의 열매를 맛보게 될 가  
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의 불안한  
정치 및 사회 체제가 그러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러시아  
에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EU 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EU로 가는 길에서 넘어  
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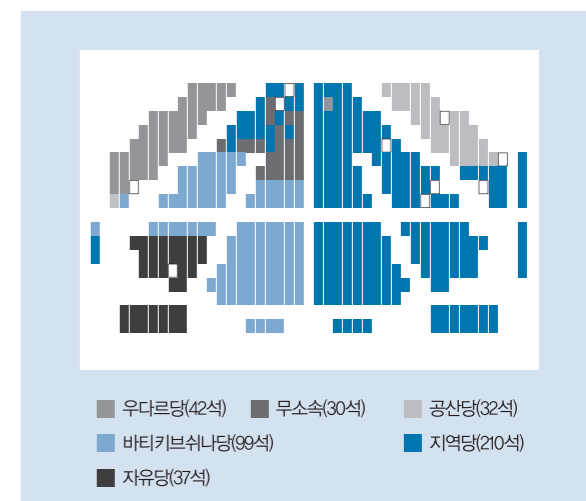
#### 복잡한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형

‘동과 서’, 혹은 ‘CU 가입과 EU 가입’이라는 우크라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그  
경제적 선택보다 더 힘든 것이 정치적 선택이다. 그 이  
유는 심각한 우크라이나의 동서 지역 갈등 때문이다.  
구소련 시절부터 친러시아 정책을 지지해온 동부와 남  
부 지역은 당연히 CU 가입을 지지한다. 이 지역의 인  
구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47% 이상(2012년 기준)이고,  
경제 비중은 51%(2008년 기준)에 달한다. 수도 키예프  
를 제외하면 경제력 기준 상위 5대 지역이 모두 동남부  
에 위치한다. 따라서 그 정치적 영향력도 엄청나다. 반  
대로 서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반러시아적이며 친유럽  
정책을 지지한다. 중부 지역은 중도적인 편이다. 극명  
하게 갈라지는 국론을 규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구  
나 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의 리더십 결여로 인  
해 여론 형성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이 정치적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지형도  
는 EU와 CU 가입에 대한 여러 기관의 여론 조사 결과  
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11년 4월 독일의 도  
이체벨레가 의뢰하여 독일의 여론조사 기관인 IFA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74%가 EU  
가입을 지지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12년 7월 키예  
프 국제 사회과학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CU 가입은  
55%가 지지한 반면 EU 가입은 40%만 지지했다. 이  
조사에서 동부지역은 77%, 남부지역은 72%가 CU 가  
입을 지지한 반면, 서부 지역은 67%가 EU 가입을 지  
지했다. 중부지역은 48%가 CU를, 43%가 EU를 선택했다.

다시 1년 뒤인 2013년 6월 “쿠체리프의 민주주의 이니  
셔티브”라는 펀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EU  
가입 지지자는 42%, CU 가입 지지자는 31%로 나타났  
는데, 여기서도 서부 지역에서는 72%가 EU 가입을  
지지한 반면 동부 지역에서는 50%, 남부 지역에서는  
39.5%만이 지지하여 동서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  
러났다.

여기에 몸싸움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  
난맥상이 더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앞길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국회 ‘라  
다(RADA)’는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집권당인  
지역당은 210석인데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57%  
가 CU 가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고, 소수당 중 하  
나인 공산당(32석)은 전체가 CU 가입을 지지한다. 반  
면, 우다르당(42석)과 바티키브쉬나당(99석)은 EU 가  
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자유당(37석)은 양쪽 모두  
를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30석은 무소속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관상 선택으로는 EU 지지파가 더 많  
은 것 같지만 다양한 정파와 다양한 유권자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EU

#### ★ 우크라이나 국회 라다(RADA) 당별 분포도



자료: 우크라이나 국회 홈페이지

# 한-EU FTA 발효 후 2년간의 실적과 평가

## Korea-EU FTA: Achievement and Assessment of past 2 years

For about two years after entering into force, the Korea-EU FTA has proved to achieve the expected effects. Even as Korea's exports to the EU decreased due to the contraction of demands following the Eurozone crisis, exports of concession items of the FTA have continued to increase outstandingly. With regard to the items subject to tariff concession, the increase of imports is distinctive and this owes to the tariff benefits of the FTA. For instance, the domestic prices of consumer goods such as food have stabilized through the fall in the price of imported goods and the production costs of intermediate products such as machinery parts have fallen, which increases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Besides, various changes in imports of strategically important raw materials contribute to the stable supply. In the future, it may be necessary to insert more efforts to expand such benefits of the FTA, especially among SM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utilisation rates of the Korea-EU FTA in 2012 were 81.4%. Specifically, those among conglomerates were 85.1% while those among SMEs were merely 73.5%.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FTA utilisation for SMEs and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in managing the countries of origin or attracting specialized human resources. In addition, it is vital to establish an 'industrial ecosystem'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the innovation of new products as well as to provide job and education opportunities.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에 잠정 발효되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FTA는 언제나 쌍방에게 이익이 된다. 우선 좀 더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학습효과(learning-by-doing)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같은 값에 더 나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격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관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생산자원 활용 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이 뒤늦게 나타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은 생산자원의 이동에 관한 것이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노동, 자본 등의 이동이 자유롭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야 FTA의 긍정적 효과가 커진다. 반대로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인 분야에 계속 묶여 있거나 수출 확대를 위한 자본투자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FTA가 체결된 후에도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는 한동안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한-EU FTA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한국과 EU 사이의 교역 자료를 중심으로 한-EU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 유로존 위기와 공교롭게 맞물린 FTA

사실 현재 세계 경제상황은 이러한 분석을 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로존 위기와 이에 따른 수요 위축이다.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시작한 유럽의 위기는 2011년에 주변국으로 번지더니 2012년에는 유로존 전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중반에 이른 지금, 유럽중앙은행(ECB)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 공조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럽의 위기가 또다시 증폭될 위험성은 많이 낮아졌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가 수요에 미친 악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IMF, OECD 등 대부분의 기관들은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2013년 하반기까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로존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한국의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였던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성장률도 낮아져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은 2012년에 전년 대비 11.4% 감소한 데 이어 2013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다.<sup>1</sup> 또한 한국의 전 세계 수출증가율은 2012년에 -1.3%를 기록했고,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up>1</sup> 이하 수출입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근거

가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이 부결되기도 하였다. 2013년 4월에는 집권당인 지역당이 국회해산까지 고려할 정도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태까지 이르렀다.

### 독자적인 타임스케줄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현 야누코비치 정권은 이미 AA 체결을 결정한 듯하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5월 29일 우크라이나의 옴서버 자격을 승인한 유라시아경제평의회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야누코비치는 아마도 우리(관세동맹)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속삭인 것은 이미 정치적 판단이 끝났다는 것을 반증한다. 7월 27일 러시아 정교의 명절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키예프로 가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만났다. 언론에서는 이 만남이 푸틴의 마지막 설득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sup>11</sup> 그러나 두 정상의 만남은 단 15분의 짧은 대화로 끝났다. 설득도 끝났다는 것이다. 이제 언론들은 EU의 압박으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9월 말까지는 중대결단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티모셴코 전 총리를 치료차 독일 병원으로 옮기거나<sup>12</sup> 혹은 완전히 석방하거나 하는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우크라이나 산업의 약점이 여전한 상태다. 친러시아 성향의 인구도 여전하다. 게다가 유럽에서 수입하는 가스는 러시아산이 대부분이어서 재판매금지 원칙에 따라 가스 수입이 중단될 위험성도 있다. 셰일가스 개발은 유럽 곳곳에서 심각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EU만을 짝사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들은 우선 당장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실시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슬라브민족 특유의 ‘느림의 미학’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오디세이가 귀향길에 지나야 했던 바다의 두 괴물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는 오비드에 따르면, 본래 착한 미녀 님프와 물의 요정이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EU와 CU라는 두 거인 앞에서 한 거인에게 몸을 던질 게 아니라 그 사이를 통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두 거인의 조급한 타임스케줄에 따르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두 거인이 선량한 본색을 회복해 타협과 양보가 가능한 시점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EU에 대해서도 CU에 대해서도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유지<sup>13</sup>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의 출구가 가까이에 있으므로 누구 하나를 선택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11</sup> Путин едет в Киев, ч тобы отговорить Януковича от сближения с ЕС. (2013.7.17.). *Корреспондент.net*.

<sup>12</sup> “Украина должна не проморгать свой момент. Выпустить Тимошенко на лечение будет хорошо для всех”, - евродепутат. (2013.7.6.). *Цензор.НЕТ*.

<sup>13</sup> Эффективность торговли Украины с ЕС и Таможенным союзом падает. (2013.6.8.). *Epravda*. <<http://www.epravda.com.ua/rus/news/2013/06/8/378796/>>(2013.7.30.)



2013년 1/4분기까지 한국경제는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유럽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EU에 대한 수입증가율은 2012년 6.2%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상반기에는 10.6%로 뛰어올랐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7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EU에 대한 무역수지가 2013년 상반기에는 26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FTA 발효 시점과 유로존 위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저성장 등이 공교롭게 맞물려 있어 전체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한-EU FTA의 전반적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FTA가 무역수지의 더 큰 악화를 방지했거나 혹은 무역수지 악화를 더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효과를 분리해낼 수 없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 인하율이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의 수출입증가율을 파악한 후, 한-EU FTA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분석해보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상반기에 비해 2013년 상반기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은 19.2% 감소했다. 2011년 상반기에 306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47억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유로존 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조선산업 경기가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침체되었던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지금 인도되는 선박들은 2~3년 전에 발주된 것이다. 2011년 상반기에 EU에 대한 수출 중 30.7%를 차지했던 선박은 2년 사이 수출액이 58.4%가 줄어들어 2013년 상반기에는 15.8%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 FTA와는 무관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선박을 제외한 품목들만 놓고 보면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은 2013년 상반기에 2011년 대비 1.8% 줄어드는 데 그쳤다. 따라서 같은

기간 중 -1.8%보다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 품목들은 평균 이상의 실적을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2013년 상반기 선박을 제외하고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자동차(12.5%)는 수출액이 2년간 10.3% 증가했다. FTA 발효 이전 EU에서 부과하던 10%의 관세가 3~5년에 걸쳐 철폐되는 데 힘입어<sup>2</sup>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대표적인 FTA 수혜품목인 셈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2.7~14%에 달하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지만, 수출증가율은 -0.3%에 그쳤다. 완성차 수출이 더 큰 FTA 효과를 누리면서 부품을 수출하여 EU 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매력

이 떨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4.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석유제품도 대표적인 수혜품목이다. 2013년 상반기 석유제품의 수출은 2년 전에 비해 12.9% 증가했다. 6.5%의 관세가 즉시 혹은 3년에 걸쳐 철폐되는 합성수지는 수출이 무려 50.7% 증가하며, 10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FTA 효과에 힘입어 20대 품목에 새로이 진입한 품목들도 눈에 띈다. 2.7~5.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조명기기는 2년간 수출이 77.9% 증가하며 EU로의 수출품목 중 16위에 올라섰고, 2.6~4.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건전지 및 축전지도 45.1% 증가하며 19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주로 LCD),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FTA와 무관하다. 이러한 IT 제품들의 수출 실적은 단기적으로는 관세의 변동보다는 자체적인 제품 사이클을 따르며, 특히 반도체와 LCD는 기존에 무관세 품목이어서 FTA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었다. 이러한 제품들의 수출 감소는 유로존 경기 침체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sup>2</sup> 이하 관세인하 자료는 외교통상부 (2010.9.). “한·EU FTA 상세설명자료.”에 근거

### ★ 2013년 상반기 대EU 20대 수출품목 증가율

품목(MTI 3단위)		2011 상반기 ~ 2013년 상반기 수출증가율(%)	2013년 상반기 수출비중(%)
전 품목		-19.2	100.0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8.4	15.8
2	자동차	10.3	12.5
3	자동차부품	-0.3	7.0
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1	6.5
5	무선통신기기	-18.4	5.9
6	석유제품	12.9	4.8
7	합성수지	50.7	3.7
8	반도체	-46.4	3.1
9	철강판	-15.4	3.0
10	컴퓨터	3.2	2.3
11	건설광산기계	-8.9	1.9
12	고무제품	-2.4	1.8
13	원동기 및 펌프	26.5	1.8
14	플라스틱제품	14.3	1.6
15	영상기기	-23.7	1.5
16	조명기기	77.9	1.1
17	기계요소	26.7	1.1
18	정밀화학원료	-9.6	1.1
19	건전지 및 축전지	45.1	0.9
20	전자응용기기	26.3	0.9

주: 굵은 글씨는 20대 품목에 새로이 진입한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 석유, 기계요소, 가방 등의 수입이 증대

그러면 FTA 발효 이후 한국의 EU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3년 상반기에 한국이 EU로부터 수입한 총액은 2년 전에 비해 18.5% 증가했다. 이를 통해 유로존보다는 한국의 수입업체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더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한국의 수입총액(전 세계 대상)이 0.6%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수입 면에 있어서 한-EU FTA가 확연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상반기 한국이 EU로부터 수입한 20대 품목 중 3개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지난 2년 간의 수입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원유와 석유제품이다. 2013년 상반기 석유제품의 수입은 2년 전에 비해 무려 315.8% 증가하며 전체 수입액 중 6.5%의 비중을 차지해 단숨에 수입품목 2위로 뛰어올랐다. 원유의 수입증가는 더욱 놀랄 만하다. 2011년 상반기에는 수입하지 않았던 EU산 원유는 2년 뒤에 17억 달러가 수입되며 수입품목 중 3위를 기록했다. 3%였던 원유 수입관세가 FTA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되면서 북해산 원유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다. 중동의 정정(政情) 불안에 따른 원유수입 다변화 노력도 이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밸브, 베어링 등을 포괄하는 기계요소의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8%에 달했던 관세가 3~7년에 걸쳐 철폐

### ★ 2013년 상반기 대EU 20대 수입품목 증가율

품목(MTI 3단위)		2011 상반기 ~ 2013년 상반기 수입증가율(%)	2013년 상반기 수입비중(%)
전 품목		18.5	100.0
1	자동차	17.9	6.8
2	석유제품	315.8	6.5
3	원유	-	6.3
4	원동기 및 펌프	15.2	4.8
5	농약 및 의약품	5.5	4.1
6	기계요소	34.9	3.8
7	계측제어분석기	24.5	3.2
8	자동차부품	-11.9	2.8
9	반도체	16.3	2.8
10	정밀 화학 원료	9.0	2.7
11	반도체 제조용 장비	-45.5	2.6
12	정전기	62.4	2.1
13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30.7	2.1
14	합성수지	11.6	1.5
15	기타 정밀화학 제품	41.5	1.4
16	회전기	82.3	1.3
17	전자응용기기	0.1	1.3
18	기호식품	14.8	1.2
19	가방	30.3	1.2
20	기타기계류	-38.2	1.1

주: 1) 굵은 글씨는 20대 품목에 새로이 진입한 품목  
2) 원유는 2011년 상반기 수입액이 0  
자료: 한국무역협회





됨에 따라 수입이 2년간 34.9% 증가하여 상반기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8%의 관세가 즉시 혹은 3년에 걸쳐 철폐되는 가방류도 수입이 2년간 30.3% 증가하며 20대 품목에 진입했다.

2011년 상반기 수입 비중 1위인 자동차는 2년간 수입이 17.9% 증가하며 2013년 상반기 수입 비중 6.8%로 1위를 지켰다. 8%의 관세가 3~5년에 걸쳐 철폐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품목들의 수입증가율이 워낙 높아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포도주(기존 관세 15%, 즉시 철폐), 수입을 거의 전량 EU에 의존하고 있는 스카치 위스키(20%, 3년 철폐) 등이 포함된 기호식품 수입도 2년 전보다 14.8% 증가하면서 20대 품목에 새로이 진입했다.

####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여야

이상에서 FTA가 잠정 발효된 후 2년간 한국과 EU의 교역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EU FTA는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유로존 위기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FTA 수혜 품목은 수출증가세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관세 양허 품목은 수입증가세도 뚜렷하다. 기호식품과 같은 소비재의 경우 수입물가가 하락하면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기계요소와 같은 중간재는 생산비를 낮춰 한국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북해산 원유 수입의 급증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재료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이러한 FTA의 혜택을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자료<sup>3</sup>에 따르면 2012년 한-EU FTA

수출활용률은 81.4%였는데, 대기업의 활용률이 85.1%였던 데 반해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73.5%에 불과했다. FTA의 관세양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수출품 중 4분의 1 이상이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에 대해 FTA 활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원산지 관리나 전문인력 보강 등에 있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혜택으로 수입단가가 낮아진 품목들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기계요소나 가방 등을 만드는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신제품 개발과 혁신을 장려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직(移職)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가 발효된 후 2년간 ‘관세 인하 품목의 교역 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경제에 득(得)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U의 전자산업 육성책: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 EU's Efforts to Revive Electronics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the measur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support micro-and nanoelectronic industry would complement plans established by private sectors. In December 2012, leading nanoelectronic producers in Europe suggested a public-private joint investment plan of 100 billion euro between 2013 and 2020. It is expected that this plan would cause the investment into R&D for nanoelectronic industry in Europe to increase up to 50% by 2020 and the sales of semiconductor producers and related companies in Europe to increase as much as 200 billion euro. If EU's investment plan is implemented as planned, the EU will be a competitor to parts companies in Korea. In addition to that, such an expansion of parts production is likel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EU companies that are taking the lead of new growth industries such as smart energy and health care where micro-and nanoelectronic components are used. In other words, as the EU tries to revive its micro-and nanoelectronic industry, the resulting synergy effects will increase the demand in related industries as well. Besides, EU companies which have gained the upper hand in production of semiconductor processing equipment will continue to grow.

#### 필립스와 EU의 전자산업

필립스는 1891년 네덜란드에서 창설된 역사가 긴 전자 회사다. 지난 120여 년 동안 필립스는 수많은 제품을 발명해왔다. 1914년에 설립한 연구소를 중심으로 가전, 조명,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해냈다. 필립스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탄소 전구를 생산하는 가장 큰 회사 중 한 곳으로 자리 잡았고, 1918년부터 의료용 X 선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27년에 라디오를 생산하기 시작한 필립스는 1932년까지 100만 대를 판매하며 세계 최대 라디오 생산업체가 되었다. 이후 콤팩트카세트(1963년), VCR(1972년), 콤팩트디스크(1983년), DVD(1997년) 등을 발명하며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경쟁력 높은 전기면도기, TV, 집적회로 등을 생산하며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산업에서 한 획을 그은 대표기업으로 주목받았다. 필립스는 2005년 포춘 500대 기업 중 116위를 차지했다.

그러던 필립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 기업들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필립스는 2006년 소비재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반도체 사업을 매각하며 재기를 모색했으나 포춘 500대 기업 순위는 2009년 195위, 2013년 347위로 지속 하락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2013년에는 수십 년 동안 필립스의 핵심사업 역할을 해온 오디오 비주얼(AV) 사업을 일본의 후나이에 1.5억

유로에 매각하며 헬스케어, 조명, 라이프스타일의 3개 신성장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 생산업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필립스는 사명에서 “일렉트로닉스”를 떼버리기까지 하며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U의 최대 전자회사인 필립스의 역사는 EU 전자산업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1990년대 말 핸드폰 시장에서 한발 앞서가던 노키아(핀란드)와 에릭슨(스웨덴)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전락하였거나 시장을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한때 산업혁명과 함께 제조 강국으로 군림했던 영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전자산업의 도전과 기회〉라는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영국보다 인구가 적고, 1인당 소득도 낮으나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sup>1</sup>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자산업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3~4년간 EU는 성공한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을 롤 모델로 삼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EU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산업통상자원부 (2013.6.27.).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으로 경제의 활력을 찾는다.” 보도자료.

1 Electronic Systems Challenges & Opportunities. (2013). The ESCO Report: A Blueprint for UK Economic Growth.





##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전자산업의 축

전자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판도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현재 글로벌 경제와 전자산업의 축이 서방에서 아시아로 움직이고 있다. 그나마 미국 그리고 주요 전자 브랜드로는 애플이 서방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모범 사례인 한국과 대만은 삼성, LG, HTC, 에이서 등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탄탄한 전자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이얼과 같은 젊은 전자 회사들이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브랜드를 물어봤을 때 EU 기업의 이름을 댈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의 힘은 애국심과 자존심보다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서 이제 노키아의 광고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삼성전자와 핀란드 게임 앵그리버드가 공동 마케팅한 광고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EU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제조업에서 0.57로 제조업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sup>2</sup> 선진국의 영역이었던 핵심 전자부품 디자인 및 개발에서도 EU의 역량이 점차 뒤처지고 있다. 전자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한 다양한 보고서들은 중국 등 신흥국 기업들이 글로벌 전자산업의 생산시스템을 넘어 혁신시스템에서도 선진국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3</sup> EU집행위도 2012년 경쟁력 보고서(European Competitive Report)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EU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유치하고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4</sup>

## EU의 전자산업 육성 전략<sup>5</sup>

2013년 5월 23일 EU집행위는 쓰러져가는 전자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자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육성 분야는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이다. 니엘리 크로스 디지털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육성정책 발표와 함께 “(이번 계획을 중심으로) EU의 칩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해 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증가시키기를 바라며, 미국보다 더욱 많은 칩을 유럽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2012년 기준 전 세계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 규모는 약 2,300억 유로<sup>6</sup>이며, 마이크로 및 나노 부품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의 시장가치는 1조 6,000억 유로에 달한다. EU가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해당 시장이 2000년 이후 연 5%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은 약 3조 유로 규모인 디지털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며<sup>7</sup>, 에너지 효율화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8</sup> 고용 측면에서도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이 중요한데 유럽에는 직접적으로 약 20만 명 그리고 간접적으로 약 80만 명이 이 분야에 고용되어 있다.

<sup>4</sup> European Commission (2012).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12. Chapter 2 – The EU Industry in the Global Value Chain.

<sup>5</sup> European Commission (2013). A European strategy for micro- and nanoelectronic components and systems.

<sup>6</sup>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 규모는 The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의 반도체 시장 규모를 사용(WSTS (2013). WSTS Forecasts semiconductor market recovery in 2013 after slight decline in 2012.)

<sup>7</sup> IDATE (2012). DigiWorld Yearbook 2012: The challenges of the digital world.

<sup>8</sup> European Commission (2013). Nanotechnology: the invisible giant tackling Europe's future challenges.

EU는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More Moore<sup>9</sup>” 전략이다. 이는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 로드맵(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에 따라 부품을 나노 규모로 소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의 R&D 투자 집중도가 2000년 11%에서 2009년 17%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업체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약 10%를 차지해야만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EU집행위는 EU의 반도체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세계 10대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업체 중 EU 기업은 단 두 곳(8위: STMicroelectronics, 10위: Infineon)뿐이며, 유럽의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제품 시장 점유율은 10%를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More Moore”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EU 내 기업들의 공동투자가 시급하다.

둘째, 마이크로칩을 파워 트랜지스터, 전기-기계 스위치 등 마이크로 부품과 접목해 기능을 다변화하기 위한 “More than Moore”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빌딩,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마이크로 및 나노 제품을 발명하려고 한다. 유럽이 자동차 관련 전자제품, 에너지 애플리케이션, 산업 자동화 부문에서 각각 약 50%, 40%, 35%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U는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의 수직통합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앞세워 “More than Moore”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EU의 추진 정책과 향후 계획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EU는 지난 10여 년간 드레스덴(독일), 그레노블(프랑스), 아인트호벤-루뱅

<sup>9</sup> 인텔의 공동창립자인 고든 무어는 196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매년 두 배씩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 이후 기간이 18~24개월로 조정

(네덜란드-벨기에), 더블린(아일랜드), 캠브리지(영국) 등에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EU집행위는 최근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에 대한 R&D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EU집행위의 해당 산업 R&D 지원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1년 이후 연 20% 증가하며, 2013년에는 2억 유로까지 확대되었다. 2008년에 EU집행위와 회원국 정부 및 민간 기업이 설립한 PPP 펀드(ENIAC JU)를 통한 해당산업의 총 투자 규모가 2013년 말까지 20억 유로에 달하고,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sup>10</sup>을 통한 투자 규모는 약 1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EU 차원의 투자는 초기 R&D, 즉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원형 개발과 최종 제품 개발 등은 민간기업이 맡아왔다.

EU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 육성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 강화: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에 대한 EU 집행위, 국가, 지역, 민간 부문의 R&D 투자 규모를 연 15억 유로로 확대해 2020년까지 총 1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것이 EU집행위의 목표다. 공공 부문은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의 R&D, 파일럿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EU는 유럽투자은행(EIB)의 혁신 관련 펀드와 지역 지원 펀드를 활용해 해당산업의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지분투자를 하려고 한다. 민간 그리고 기업들 간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EU는 제조업과 디자인산업의 클러스터 활용방안과 가치사슬에서의 파트너십 및 연합을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럽 산업전략 로드맵”을 2013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 EU집행위는 산학 R&D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계획이다.

<sup>10</sup>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1984년에 시작된 범유럽 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 현재 2007~2013년 7차 프로그램이 진행 중

<sup>2</sup>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이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

<sup>3</sup> Sturgeon, T. & Kawakami, M. (2010). Global Value Chain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417). World Bank.; Galar, M. (2012). Competing within global value chains. *ECFIN Economic Brief*, 17.; Dai, L. (2013).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nations: How global supply chains change our understanding of comparative advantage (M-RCBG Associate Working Paper Series No. 15). Harvard Kennedy School.



#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 EU's Investigation on Google Violating the Competition Law

Misusing the dominant position and distorting the market competition is prohibited according to the competition law, and the EU prohibits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Article. 102 of TFEU(Treaty on the Function of the EU). Established in 1998 based on the 'Page Rank' technology developed by Larry Page and Sergey Brin, Google provides internet searching and online advertisement services and is expanding its business areas to other sectors such as mobile operation system, etc. Because it runs the world's largest searching website and maintains the overwhelming position in the market for Android Operating System, its competitors, both companies and countries,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suspicion of its violation of the competition law.

사업자가 정당한 경쟁방법을 통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것은 경쟁법상 금지되어 있다.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 of the EU)」 제102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Abuse of Dominant Position)를 금지하고 있다.<sup>1</sup>

스탠포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개발한 '페이지랭크' 기술을 기반으로 1998년 설립된 구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 등으로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대표 기업인 구글은 현재 세계 최고의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안드로이드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쟁업체와 EU 등 세계 경쟁당국은 구글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sup>1</sup>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2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체 시장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회원국 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동체 시장 질서에 위배되어 금지됨. 남용행위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a) 직접, 간접적으로 부당한 구입 또는 판매가격이나 기타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b) 생산, 시장 또는 기술적 발전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c) 동등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이한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하는 행위  
d)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속성이나 상관행상 계약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부수적인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행위

### 1.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구글은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의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90%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경쟁사업자들은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경쟁법 위반 행위를 EU 경쟁총국<sup>2</sup>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EU 경쟁총국은 구글의 경쟁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였다.

###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EU 경쟁총국은 2010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어서치<sup>3</sup>, 파운템이 구글의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함에 따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발견하였다.<sup>4</sup>

(1) 검색 결과에 자사의 전문검색서비스를 경쟁업체 서비스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한 행위: 구글은 주력 서비스인 일반검색서비스 외에 구글 쇼핑, 구글 플레이스 등 전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일반

<sup>2</sup>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  
<sup>3</sup>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오라클 등 17개 검색 및 기술 업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sup>4</sup> European Commission (2013). Commission seeks feedback on commitments offered by Google to address competition concerns (EC Memo/13/383).

### 한-EU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

EU집행위의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 지원책은 민간 부문이 수립한 계획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주요 나노 전자 기업들은 이미 2012년 12월에 1,000억 유로 규모의 민간 공동 투자계획(2013~2020년)을 제안했다.<sup>12</sup> 민간기업 단체는 유럽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재설치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850억 유로, 자본지출 15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2020년에는 유럽 나노 전자산업의 R&D 투자규모가 50% 증가하고, 유럽의 반도체 생산업체와 반도체 사용업체의 매출이 2,00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이며, 25만 명의 직간접적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계획도 EU집행위의 계획과 같이 나노 전자산업 가치사슬과 혁신사슬의 모든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EU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EU는 한국 부품업체들의 경쟁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내 부품 생산 확대에 힘입어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스마트에너지, 헬스케어와 같은 신성장산업을 주도하는 EU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EU가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부품 산업을 육성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에서 더욱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반도체 공정장비 생산에서도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EU 기업들도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2012년 8월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인 ASML의 지분 인수와 연구개발에 7.8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up>13</sup>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은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부품을 사용하는 EU 기업들과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EU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sup>11</sup> European Commission (2013). Five major projects announced as part of new EU Electronics strategy (Memo/13/466).  
<sup>12</sup> AENEAS & CATRENE (2012.). Innovation for the future of Europe: Nanoelectronics beyond 2020.  
<sup>13</sup> "삼성, ASML에 7억 7,900만 유로 투자". (2012.8.27.). 『조선일보』.

과거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합 및 대체해 지원 프로그램을 간소화하려고 한다. EU집행위, 회원국, 산업 간 3자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JTI는 파일럿 프로그램 등 자본집약적인 기업 활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3) 인적 자원 육성 및 인프라 공유: EU집행위는 “e-기술 이니셔티브” 등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해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산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EU집행위는 학계와 회원국이 연구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이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기술을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어 5월 29일에는 EU집행위가 EU의 새로운 전자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5대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했다.<sup>11</sup>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모든 분야 및 단계의 기업과 대학의 연구역량을 연계해 최상의 마이크로 및 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칩 설계자, 중간부품 생산자, 최종 사용자 등을 연결해 개발 과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한다. 5개 파일럿 프로젝트에는 EU집행위의 1.1억 유로를 포함해 총 7.3억 유로가 투자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5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 새로운 전자산업 육성정책의 5대 파일럿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주요 연구 분야	참여 파트너 기업 수	완료 시기
프랑스 AGATE	질화갈륨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상용화	10	2015년 12월
네덜란드-벨기에 E450EDL	450mm 웨이퍼 공정	43	2016년 9월
오스트리아 EPPL	전력 전자소자 생산	31	2016년 3월
이탈리아 Lab4MEMS	스마트 센서 및 액추에이터 생산	20	2015년 6월
프랑스-독일 Places2Be	FD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기술 상용화	23	2015년 12월

자료: ENIAC (2012.). Communication to the Governing Board of the ENIAC Joint Undertaking regarding the selection of project proposals and the allocation of public funding following negotiations for Call 2012-2 (ENIAC-PAB-164-13).



검색 시 이러한 자사의 전문검색서비스 결과를 경쟁업체의 유사 서비스 결과보다 상위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유리하게 취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더 많이 관련 있는 정보를 선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 사업상 불이익을 주어 전문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 혁신을 꾀할 유인을 감소시켰다.

(2) 전문검색서비스 경쟁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동의 없이 사용: 구글은 자사의 전문검색서비스에서 경쟁 전문검색서비스의 사용자 리뷰 등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함으로써 경쟁사의 투자 이익을 전용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경쟁업체의 인터넷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 투자유인을 감소시켰다.

(3) 웹사이트 운영자와 배타적 온라인 검색광고 계약 체결: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 중 ‘애드센스(AdSense for Search)’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창을 전시하고, 웹사이트 사용자가 그 창에서 검색을 하고 광고를 클릭하면 그 광고 수익을 구글과 웹사이트 운영자가 공동 분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애드센스 계약상 웹사이트 운영자는 구글의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검색 광고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배타적 계약은 검색광고 중개 서비스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 이용 시 경쟁사 플랫폼으로 온라인 검색광고 데이터의 이동 및 관리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 ‘애드워즈(AdWords)’는 광고주가 구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글 웹사이트와 애드센스에 가입한 제3자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계약상 광고주는 애드워즈 광고에 사용한 광고카피를 경쟁업체의 광고 플랫폼으로 옮겨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광고주들이

구글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이트에 온라인 검색 광고를 병행하게 만들어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광고주나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못하고, 서비스 혁신을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EU 경쟁총국의 조치와 구글의 자진시정방안

EU 경쟁총국은 앞서 언급한 혐의들에 대하여 구글에 시정방안 제시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2013년 4월 26일 구글의 자진시정방안(commitment)<sup>5</sup>을 공개하고 경쟁업체 등 제3자로부터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market test)에 착수하였다.

구글은 자진시정방안에서 위반혐의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① 사용자가 구글의 전문검색서비스와 일반 검색서비스 결과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② 모든 전문검색 웹사이트에 구글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며 언론사 등에 자신의 콘텐츠 사용 통제권한을 부여하여 경쟁사 콘텐츠 무단사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③ 계약 상대방인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④ 광고주들의 경쟁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치를 약속하였다.

### 2. 스마트폰 및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구글은 2011년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핵심적인 휴대폰 표준 특허들을 취득하였고, 최근 모토 X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스마트폰 제조 산업에서도

<sup>5</sup> EU 이사회 규정 1/2003 제9조에 근거한 동의명령제도는 경쟁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경쟁상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commitment)을 제시하면 당해 행위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는 대신,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에 구속력을 부여해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위반할 때에는 전 세계 관련 매출액의 10%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약 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경쟁총국은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후 스마트폰 표준기술 특허의 행사와 관련하여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EU 경쟁총국은 2013년 5월 6일 구글의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를 이용하여 유럽 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모토로라는 애플이 자사의 스마트폰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독일 법원에서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애플은 EU 경쟁총국에 모토로라를 반독점 혐의로 제소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표준필수특허는 무선통신업계에 필수적인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표준과 관련된 것으로서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기술표준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기술이다. EU 경쟁총국은 2012년 2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승인 시부터 구글의 특허권 남용을 우려하였으며,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IT 산업 분야에서 산업표준기술을 설정하는 것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일단 산업표준기술이 설정된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표준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허 위협(patent hold-up)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설정기구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자사의 기술이 표준필수특허로 채용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에 따라 특허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U 경쟁총국은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독일에서 판매금지 청구를 신청한 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가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라이선스 이용을 요청한 사업자가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이용 조건을 받아들일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매금지 명령을 구하고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EU 경쟁총국은 모토로라가 애플에 대해서 표준필수특허의 유효성이나 특허 침해 여부를 다룰 수 없다는 규정을 받아들여 이득을 얻는 것이 기술 표준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U 경쟁총국의 조사는 구글이 판매금지청구를 통해 경쟁사를 압박하는 것을 금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동의명령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EU 경쟁총국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도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EU 경쟁총국은 2013년 5월경 애플이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 했는지에 대한 질문지를 관련 이동통신회사들에 발송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의무판매 물량을 할당했는지, 마케팅 비용에 제한을 두도록 했는지, 보조금 및 판매기간 등 애플의 판매조건을 다른 휴대폰 제조사보다 유리하게 제시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폰이 유럽 지역에서 초고속 4G 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을 두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좁은 문: 유럽의 여성 정치 리더십

## Glass Ceiling: The Female Political Leadership in Europe

In the late 9<sup>th</sup> century, women in the western world except New Zealand, a colony of the U.K. at the time, did not have the right to vote,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human's political rights. In the 21<sup>st</sup> century, most of the countries granted the political right to adult women although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is still limited even in Europe due to the barrier to political intervention. Of course, there have been many successful cases of female political leaders since the 20<sup>th</sup> century. There are examples who were appointed as the national sovereign not by heredity but election or nomination such as Vigdis Finnbogadottir the president of Iceland, and Mary Robinson the president of Ireland, Tarja Halonen the president of Finland, Margaret Thatcher the prime minister of United Kingdom, Angela Merkel the prime minister of Germany and so forth. Despite such successful cases, however, female politicians in Europe find it difficult to bring down the barrier when entering and advancing in politics.

19세기 말 서구 여성은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정치적 기본권에 준하는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확산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전 세계에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서부 주가 주도한 성인 여성 참정권 운동은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유럽 지역에서는 1930년대에 프랑스, 이탈리아, 구 유고연방, 벨기에(지방선거에서는 1919년에 채택), 그리고 스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가 개헌을 통해 여성 참정권을 도입했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성인 여성 참정권을 채택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인해 유럽에서마저도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치권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승진장벽이 치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고위급 여성 정치 지도자가 드물었다. 물론 20세기 이후에는 유럽에서 여성이 정치 리더로 성공한 사례도 많다. 세습이 아닌 선출직이나

### ★ 의회 선거에서 여성 후보 할당 현황

구분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여성 후보 할당 배정의 법제화	
단원제	덴마크 (1915년), 스웨덴 (1921년), 룩셈부르크 (1919년), 헝가리 (1918년), 리투아니아 (1918년), 슬로바키아 (1920년), 크로아티아 (1945년), 키프로스 (1960년)		여성 할당 법령 제정	핀란드 (1906년)
			여성 할당 법령 제정 & 헌법 조문	그리스 (1930/1952년)
			할당 위반 시 제재	포르투갈 (1931년) [정치자금 제재]
양원제	단방제	노르웨이 (1913년), 아이슬란드 (1915년), 네덜란드 (1919년), 영국 (1918/1928년), 루마니아 (1938년)	할당 위반 시 제재 & 정당 명부 내 성별 순번제 의무 법령	폴란드 (1917년), 스페인 (1931년) [정당 명부 등록 거부]
			할당 위반 시 제재 & 정당 명부 내 성별 순번제 & 헌법 조문	프랑스 (1944년) [정치자금 제재]
			여성 할당 법령 제정	아일랜드 (1918/1922년), 슬로베니아 (1945년)
	연방제	오스트리아 (1919년), 독일 (1918년), 체코 (1920년), 스위스 (1971년)	여성 할당 법령 제정 & 헌법 조문	이탈리아 (1942년)
			할당 위반 시 제재 & 정당 명부 내 성별 순번제 의무 법령 & 헌법 조문	벨기에 (1919/1948년) [정당 명부 등록 거부]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여성 참정권이 정립된 연도, 두 개의 연도가 표시된 것은 지역적으로 시행된 시기와 전국적으로 도입된 시기를 의미, 에스토니아(1917년), 라트비아(1917년), 불가리아(1938년)는 현재 의회 선거에서 여성 후보 할당에 관한 조치가 미비해서 표에서 생략

###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페어서치는 2013년 4월 10일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제조사들을 압박하여 스마트폰 기기의 출사를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하였다고 EU 경쟁총국에 신고하였다. 나아가 페어서치는 구글이 단말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구글 지도,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선탭재하도록 강요하여 경쟁업체들이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게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U 경쟁총국은 2013년 6월 13일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질문서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구글이 모바일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3. 평가 및 시사점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EU 경쟁총국은 인터넷 시장과 같이 빠르게 기술이 진보하고 사업모델이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장기간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해결책을 신속히 제시해 경쟁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동의명령 제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구글이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경쟁사업자들은 인터넷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EU 경쟁총국에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약 2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13년 1월 3일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sup>6</sup>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사의 전문검색 결과를 상위에 전시하는 검색 차별 행위는 구글이 사용자에게 최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려는 것에서 비

롯된 것이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대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경쟁법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sup>7</sup>

이와 같은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의지 및 시장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EU 경쟁총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special responsibility)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유럽에서는 90%를 넘지만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가 약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유럽에서 훨씬 강하다는 점 등도 EU가 미국과 상반된 결론에 이른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up>6</sup> 다만 구글은 검색광고 플랫폼 개방, 특허권 행사에 있어 FRAND 조건 준수, 판매금지 소송을 통한 경쟁사 압박 금지 등을 약속

<sup>7</sup> Federal Trade Commission (2013).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Regarding Google's Search Practices In the Matter of Google Inc (FTC File Number 111-0163).



임명직으로서 국가 원수나 행정부 수반으로 발탁된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아이슬란드 대통령, 메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마가릿 대처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고, 정치적 대표성을 가시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적 보완책이 여성 할당제다. 특히 유럽 국가의 대다수가 비례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할당에 의존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다.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기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 각국의 의회 선거 시 여성 후보에게 일정한 몫을 배정하는 방식을 비교해보자. 우선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 후보에 대한 자발적 할당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여성 후보에 대한 할당 배정을 법제화하거나 헌법 조문에 명시한 국가도 있다. 일찍이 유엔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30%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헝가리, 루마니아 등 일부 구 동구권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진보 진영의 정당을 주축으로 여성 후보 할당을 수용해 권고 수준인 30%를 초과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정당은 이러한 자발적 여성 후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구조적으로 여성의 정치 진입에 제약이 가해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저조하다고 인지하지 못한 탓이다. 결국 보수 진영은 여성을 소수 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조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 추진을 목표로 하는 임시 조치인 자발적 할당 배정마저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당에 자발적으로 여성 후보 할당을 책정하는 국가라도 할당 배정이 당직인지 후보직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 무엇보다 선거 결과에 의해 당선 여부가 결정되므로, 후보적으로 여성 후보 할당제를 제한하는

경우 조직과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한 여성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직까지 여성 후보 할당제를 적용하는 경우, 여성 의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대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기회 균등에 저촉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고 여성 후보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난도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질적 대표성까지 보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정당의 자발적 여성 후보 할당뿐 아니라 입법부나 집행부 구성 시에도 여성 수를 배정하는 방법을 헌법 조문이나 선거법에 명시해 여성 후보 할당을 강제하는 국가도 있다. 프랑스는 헌법 조문(3조와 4조)에 선출직 배정 시 정당에 성 평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스는 여성 후보 할당은 성 차별이 아니라고 천명하고, 이탈리아는 지역정부에 여성 후보 할당이 보편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벨기에는 할당제가 모든 정부 단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핀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은 헌법 조문 대신 별도의 선거법에 여성 후보 할당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법에 명시된 여성 후보 할당제를 위반하는 경우 벨기에, 스페인, 폴란드는 성별 순번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부 등록을 거부하고, 프랑스나 포르투갈은 정치 자금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성 후보 할당제의 형태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 후보 할당을 책정하는 국가가 여성 후보 할당을 헌법 조문이나 별도의 선거법에 명시한 국가보다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가 평균적으로 높은지(또는 낮은지), 왜 그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또는 왜 특정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지) 등을 설명하는 데 여성 구성원의 수적 구성비 자체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북구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1970년대부터, 독일은 1980년대부터 여성 할당제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수용하는 정치문화로 자동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법제화된 규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여성 할당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관례화되면서 여성 후보 할당제를 법제화해야만 비로소 여성의 정치 리더십을 확고하게 만드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인가.

핀란드는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법제화했을 뿐 아니라, 다른 북구 국가와 달리 평등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자문이사회 및 지방정부 의회를 제외한 이사회에도 할당제를 강제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 리더십을 제고하려는 정치문화가 정립된 경우, 정당의 자발적 여성 후보 할당 책정으로 인해 정치적 대표성이 정립되었다기보다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뒷받침하는 정치문화와 정치제도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에 여성 후보 할당제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방의회를 제외하더라도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데 가장 효율적인 기제는 역시 여성 후보 할당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다. 핀란드는 여성 후보 할당제에 대한 긍정적인 정치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제도와 법령을 보완함으로써 여성 정치 리더십의 발판을 완비했다. 그 결과 핀란드는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에 이어 2000년에 여성 대통령(타르야 할로넨)을 배출했고, 2010년에는 여성 총리(마리 키비니에미)도 배출했다.

정치문화와 법제도 사이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완해온 핀란드와는 대조적으로 벨기에는 진보성향의 플랑드르 지역보다 보수성향의 왈로니 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대 노력에 대한 반발이 컸다. 이러한 지역 간 간극은 지방선거에서는 1919년에 채택이 되었으나 정작 지역선거와 중앙정부 선거에서는 1948년에야 도입된 여성 참정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극심한 지역 간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2002년 개헌 당시 성적 평등조항을 조문으로

삽입했다. 마침내 정부 단계 간 종적 및 횡적으로 네덜란드계 플랑드르 지역과 프랑스계 왈로니 지역 간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간극을 줄이는 법제화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만약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공감대 또는 정치문화 전통이 부족하거나 지역에 따른 불균등이 크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정치제도를 갖추고 최소한 초기 단계에서는 획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정치문화를 축적하여 의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

이렇듯 같은 유럽이라는 열린 공동체에서도 정계로 입문하려는 여성에게는 판이하게 다른 좁은 문이 버티고 있다. 30개 유럽 국가를 비교해보면, 현대 유럽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드러내는 성불평등지수와 그 지수 중 일부를 구성하는 여성 하원의원의 의석점유율 간 상관관계는 대체로 높다. 즉, 여성 하원의원의 의석점유율이 높을수록 성불평등지수는 낮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를 근거로 여성 할당제를 모든 유럽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정치제도의 주요 설명변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음 표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는 3가지 지표(출산 비율, 하원 의석점유율과 고학력 비율, 경제활동 참여율)를 복합한 성불평등지수, 여성 하원 의석점유율과 앞서 소개한 여성 할당에 관한 법제도와 연계해 관찰할 수 있다. 비록 성불평등지수와 여성 하원의원의 의석점유율 간 상관관계가 높지만, 유럽에서도 다양한 분포가 발견된다. 유엔에서 권고한 여성 할당량 30%를 여성 하원의원 의석점유율의 준거로 상정했을 때, 2010년 수치로 30개 유럽 국가 중 12개국만 성불평등지수가 상위를 점한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은 비록 성불평등지수에서 상위 15개 국가에 속하지만 그래도 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은 30%에 조금 못 미치는 높은 여성 의원 비율을 보인다. 물론 하위 15개국은 예외 없이 권고 의석점유율 30%를 넘지 못한다. 그렇지만 체코, 폴란드,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등을 포함해 심지어 여성 할당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등도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한 영국이나 룩셈부르크에 버금가는 수준인 20%를 조금 넘는다.





★ 유럽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성불평등지수, 여성 하원 의석점유율, 법제도

국가	GII	의석(%)	선거제도 내 여성 할당
스웨덴	0.055	44.7	단방제 단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핀란드	0.075	42.5	단방제 단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법제화
스위스	0.057	40	연방제 양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노르웨이	0.065	40	단방제 단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아이슬란드	0.089	40	단방제 양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덴마크	0.057	39.11	단방제 단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네덜란드	0.045	38.7	단방제 양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벨기에	0.098	38	연방제 양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헌법 조문 & 제재
스페인	0.103	36	단방제 양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법제화 & 제재
독일	0.075	32.9	연방제 양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슬로베니아	0.08	32.22	단방제 양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법제화
이탈리아	0.094	31.4	단방제 양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헌법 조문
포르투갈	0.114	28.7	단방제 단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법제화 & 제재
오스트리아	0.102	27.9	연방제 양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프랑스	0.083	26.9	단방제 양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헌법 조문 & 제재
불가리아	0.219	24.6	단방제 단원제, 여성 할당제 미흡
리투아니아	0.157	24.1	단방제 단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크로아티아	0.179	23.8	단방제 단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폴란드	0.14	23.7	단방제 양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법제화 & 제재
라트비아	0.216	23	단방제 단원제, 여성 할당제 미흡
영국	0.205	22.5	단방제 양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체코	0.122	22	단방제 양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룩셈부르크	0.149	21.8	단방제 단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그리스	0.136	21	단방제 단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헌법 조문
에스토니아	0.158	20.8	단방제 단원제, 여성 할당제 미흡
슬로바키아	0.171	18.7	단방제 단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아일랜드	0.121	15.1	단방제 양원제, 여성 후보 할당 배정 법제화
루마니아	0.327	13.4	단방제 양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키프로스	0.134	10.7	단방제 단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헝가리	0.256	8.8	단방제 단원제, 정당의 자발적 할당 책정

주: 1) 성불평등지수 수치는 2012년, 여성 하원 의석점유율 수치는 2010년 자료  
2) 굵은 글씨는 성불평등지수 상위 15개 국가

유일하게 아일랜드는 비례대표제의 하나의 형태인 단기이양투표(STV: Single Transferable Vote) 선거제를 택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유럽 국가가 택한 정당 명부방식과 달리 개별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다. 총유효득표수를 초과한 잉여표는 유권자가 제출한 선호도 순서에 따라 다음 순위의 후보에게 이양된다. 즉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궁극적으로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여성 후보 할당을 규정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유권자가 잉여표를 이양하는 선호도 표시에서 여성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결국 직선으로 구성된 하원에서 15.1%로 여성 의석점유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공감대와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정치문화가 미흡하다는 증거다.

다만 하원과 달리 간선과 임명직으로 구성된 상원에서는 여성 의석점유율이 30%에 이른다. 이는 비록 여성 정치적 대표성의 정치문화가 결여되어 있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진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불충분하더라도, 법제화된 여성 할당제가 최소한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일랜드는 메리로빈슨 대통령(1990~1997년)과 메리 매컬리스 대통령(1997~2011년) 등 두 명의 여성 국가원수를 배출했는데, 이러한 제도적 제약 속에서 여성이 의전 역할을 넘어서는 통치 의지를 초당파적으로 이끌어내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위의 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선거제도뿐 아니라 상위단계의 통치 질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방제와 연방제의 차이는 헌법에 종적 권한분산을 명시한 연방주의를 통치원칙으로 하느냐 여부에 있다. 연방제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한된 정부를 통해 주권재민을 실현하려는 통치 질서로서 종적 권한분산을 명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종적 권한분산을 암묵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특히 입법부가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에 기반을 두면 기능적 대변기관을 통한 종적 권한분산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실제로 성불평등지수 상위 15개 국가 중 10개 국가는 양원제를 채택한 반면, 하위 15개 국가 중 5개국만 양원제를 채택한다. 물론 양원제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는 상원의 여성 의석점유율이 하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인 루마니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의원으로 구성된 하원과 별개로 간선 또는 임명되는 상원이 최소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 의결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책 입안에 대해 최소한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명 양원제는 선거제의 여성 후보 할당제와 더불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진을 수용하는 정치문화가 확립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다. 그런데 만약 양원제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의 부산물 또는 지역할거주의에 대한 대가라면, 양원제는 오히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결국 유럽에서도 여성의 정치 리더십을 향한 좁은 문은 대의민주주의 내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정치가 지향하는 이상, 그리고 구성원의 이익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수용할 때 열린다. 이러한 유럽의 좁은 문은 한국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은 과반수에 근접하거나 훌쩍 넘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아직 느리기는 하나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비율 증대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16대 5.9%, 17대 13.0%, 18대 13.7%, 그리고 19대 15.7%로 늘었다. 2006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배출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따라서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약진은 과히 ‘여풍(女風)’에 비유할 만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유리천장의 균열’은 아직 요원하다. 일례로 여성 국회의원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17대(2004년) 국회의원의 13.0%인 총 39명 여성 국회의원은 지역구 10명과 비례대표 29명으로 구성되었다. 18대(2008년) 국회의원의 13.7%인 41명은 지역구 14명과 비례대표 27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최근

19대(2012년) 국회의원의 15.7%인 47명은 지역구 19명과 비례대표 28명으로 구성된다. 결국 꾸준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유엔이 권고한 30%를 훨씬 밑도는 10%대에서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비례대표가 두 배 이상 많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여성 할당제 도입으로 인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대를 경험한 바 있다. 국회와 시도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천 할당제’를 골자로 하는 정당법을 2002년과 2004년에 개정한 이후, 16대 5.9%에 머문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대 13.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구 여성 할당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 앞서 표에서 살펴봤듯이 여성 할당제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정당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는 국가의 여성 의원 비율이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은 국가의 비율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높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성 할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안데르스 욘손 국제의회연맹(IPU) 회장은 “여성의원이 30%를 넘어야 여성의 관점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순히 여성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남성과 다른 여성의 사회적 관점이 국방,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 도입”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은 양성평등 인식이 정치문화에 스며들어 정치적 관행으로 반복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또한 한국이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 다수 국가와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

이옥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은행 건전성 개선이 중소기업 성장의 열쇠

## Banking Soundness is the Key to more SME Financing

The SME access-to-finance problem is not universal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re are reasons for the fall in credit aggregates and higher SME lending rates in southern Europe. Possible market failures, high unemployment and externalities justify making greater and easier access to finance for SMEs a top priority. Previous European initiatives were able to support only a tiny fraction of Europe's SMEs; merely stepping-up these programmes is unlikely to result in a break-through. Without repairing bank balance sheets and resuming economic growth, initiatives to help SMEs get access to finance will have limited success. The European Central Bank can foster bank recapitalisation by performing in the toughest possible way the asset quality review before it takes over the single supervisory role. Of the possible initiatives for fostering SME access to finance, a properly designed scheme for targeted central bank lending seems to be the best complement to the banking clean-up, but other options, such as increased European Investment Bank lending and the promotion of securitisation of the promotion of securitisation of SME loans, should also be explored.

중소기업(SME)은 유럽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2012년 EU에서 SME는 전체 기업 수의 99.8%, 고용의 67.4%, GDP의 58.1%를 차지하며 EU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sup>1</sup>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에서는 SME가 고용의 85%를 맡고 있어 국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최근 남유럽 국가의 SME는 금융접근성이 악화되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의 신용공급 감소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SME가 신용에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남유럽 경제의 주축인 SME로의 자금흐름이 메마르면서 경기침체도 심화되고 있다.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치솟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SME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의 대표 싱크탱크인 브뤼겔(Bruegel)도 남유럽 국가의 SME 자금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은행의 건전성이 SME 자금 지원을 위한 열쇠(Banking System Soundness is the Key to more SME Financing)>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3년 ECB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남유럽 국가의 신용공급이 실제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독일에서 SME 대출신청이 승인된 경우는 85%,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는 72~79% 수준이었다. 반면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2~57% 수준으로 대출승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ECB는 대출승인을 거부한 횟수를 토대로 'SME 금융확보의 장애물(Financing obstacles for SMEs)' 지수를 산출했는데,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은 51~64%,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31~45% 수준으로 독일(9%)과 오스트리아(14%)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처럼 남유럽 국가에서 SME의 신용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를 이 보고서에는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자 SME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의 증가가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SME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SME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예로 2007년부터 5년간 실행된 '경쟁력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CIP: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의 'SME 보증기금(SMEG: SME Guarantee Facility)'과 '고성장 및 혁신 SME 기금(GIF: The High growth and innovative SME Facility)' 등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

(Initiative)를 뒷받침해주며 SME의 신용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럽투자은행(EIB) 등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대출보증이다. 둘째, SME 대출의 증권화이다. 셋째, 중앙은행이 장기간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EIB와 같은 공공부문 금융기관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한다. EIB는 2012년 6월에 「성장과 고용 협정(Compact for Growth and Jobs)」의 일환으로 SME 지원액을 100억 유로 증액하였다. 하지만 EIB의 증액이 잠재적 위험까지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ME 대출의 증권화는 SME 대출을 증권 형태로 전환해 민간투자자에게 판매 혹은 리포파이낸싱(Repo Financing)하거나 SME 대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높이는 것으로, 증권 형태의 SME 대출을 민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모럴해저드에도 불구하고 신용정책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유동성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CB는 저금리로 유럽의 은행들에게 장기 대출해주는 LTRO를 2011년 12월과 2012년 7월에 두 차례 시행하였으며, 영란은행과 영국 재무부는 민간부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펀딩제도(FLS: Funding for Lending Scheme)를 2012년 7월에 설립하였다. 또한 헝가리 중앙은행(MNB)은 2013년 4월에 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FGS: Funding for Growth Scheme)을 채택하였다. ECB의 LTRO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 하지만 민간부분으로의 대출 확대 효과가 미미했고, 오히려 부실은행의 구조조정 노력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또한 FLS와 FGS 등 공공부문의 부실은행 지원은 부실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어져,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함께 좀비경제화(zombification)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금융기관의 대출, SME 대출의 증권화,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등이 은행의 신용정책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3년 EU집행위와 EIB가 100만 개의 SME를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한 유럽의 SME 지원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ECB가 단일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에 '자산건전성평가(Asset Quality Review)'를 엄정히 실시함으로써 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 Darvas, Z. (2013. 7.). Banking System Soundness is the Key to more SME Financing. Bruegel) ★

이서영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sup>1</sup> European Commission (2012).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 2013 EU 환경 하계특강 2013 Special Lecture for the Summer Season on EU Environment

2013 special lecture for the summer season on EU environment was conducted at Yonsei University from July 15<sup>th</sup> to 19<sup>th</sup>, 2013. On the first day, Sangin Kang, the senior development and management manager at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Center, gave a lecture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UN, and professor Bernhard Seliger from Seidel Foundation talked about the Germany's green energy policies. On the second day, Jiyong Eom,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Sogang University, gave a talk about climate changes and energy policies, which was followed by the lecture on energy cooperative diplomacy of Korea by Seonghwan Oh, the head of the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the third day, Jiseok Kim, the senior manager of the climate change division of the U.K. Embassy in Korea, gave a talk on measures to climate changes in the U.K., which was followed by the talk by Jonghwan Noh, the president of Korea Carbon Finance Co., Ltd. On the last day, Byeonguk Lee, the director of the Korean Environment Policy Evaluation Research Center, talked about the beautiful harmony between environment and creative economy, which was followed by the lecture of Muyeong Han, a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recycling of rainwater and then the field trip to the rainwater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3 EU 환경 하계특강이 2013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강상인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선임개발관리관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한스 자이델 재단의 버나드 젤리거 박사가 독일의 녹색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연하였다. 둘째 날은 엄지용 서강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에 대한 강연과 오성환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장의 한국의 에너지 협력 외교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셋째 날은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담당관의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연과 노종환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 사장의 강연이 있었다. 마지막 날은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환경과 창조경제의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강연하였고, 한무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빗물 재활용에 대한 강의를 한 후 서울대학교 빗물센터로 현장견학을 갔다.



## 2013 브뤼셀 Immersion Field Trip 2013 Immersion Field Trip to Brussels

Yonsei-SERI EU Center conducted the 'EU Immersion Field Trip to Brussels' programme from June 25<sup>th</sup> to 27<sup>th</sup>, 2013 in Brussels, Belgium. This is a visitational program to major institutions of the EU, which aims to draw attention to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EU in view of European integration and to satisfy curiosity about Europe. This year, 15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programme. On the 25<sup>th</sup>, students visited European Council, went on to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and participated in the 'Youth Dialogue' forum with students who were taking doctorate degrees through the Erasmus Mundus scholarship programme. On the second day, they visited the Korean embassy in Belgium and the European Parliament. After the official arrangement, students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those who were working in various areas such as economy, security, culture, and society and to have individual interviews on the EU.

연세-SERI EU센터는 2013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EU 브뤼셀 Immersion Field Trip' 프로그램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EU의 핵심기구를 방문해 유럽통합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되새겨보고, 유럽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총 15명의 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25일 학생들은 유럽이사회를 방문한 후, 브뤼셀 자유대학으로 이동하여 에라스무스 문두스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함께 'Youth Dialogue'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둘째 날은 주벨기에 한국대사관과 EU집행위를 방문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으로는 유럽의회를 방문하였다. 공식 일정 후 학생들은 경제, 안보, 문화, 사회 등 각자의 관심분야에서 중사하고 있는 EU 관계자들을 만나 개별 인터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오는 9월 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제1차 한-EU 협력 포럼 1<sup>st</sup> Korea-EU Cooperative Forum

On July 18<sup>th</sup>, 2013, the 1<sup>st</sup> Korea-EU cooperative forum was held at the meeting room on the 5<sup>th</sup> floor of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this forum entitled <Female Political Leaders in Europe>, Ok-yeon Lee,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gave the presentation. Professor Lee introduced female political leaders in Europe from Isabella I, the Spain queen in the 15<sup>th</sup> century to Merkel, the current German Prime Minister, explaining the great achievements of female political leaders in Europe after overcoming the barriers against the entrance to politics. After the presentation, a session was given for participants to discuss the common factors and differences among female political leaders, thinking about the future political system to foster female leadership appropriate for the Korean society.

지난 7월 18일 삼성경제연구소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한-EU 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유럽의 여성 정치 리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옥연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이옥연 교수는 15세기 이사벨 1세 스페인 여왕부터 21세기 메르켈 독일 총리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여성 정치 리더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왕권억압과 제도권 진입장벽을 넘어 정치 지도자로서 남긴 위업을 함께 설명했다. 발표 이후 참여자들과 함께 여성 정치 리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여다보며 한국형 미래 여성 리더십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